

고승범 “韓 신용등급 안정적… 국채 보다 가계부채가 문제”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뉴딜펀드 투자, 국가위해 꼭 필요
펀드에 예산 투입 하는것이 바람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의 질의에 “오히려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신용등급을 낮출수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각종 이자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 위원장은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부채 가지고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상태이고, 외평채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을 것이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말 87.3%에서 올해 6월말 기준 104.2%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57.3%에서 63.9%,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 위원장은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뉴딜펀드 예산은 6400억원으로 올해(5100억원)보다 13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은 끌어다 댔지만, 펀드조성 대비 투자비용은 혁신모험펀드 56%, 기업혁신펀드 39%에 불과하다”며 “KDB 탄소넷제로와 뉴딜펀드의 지원대상 또한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책뉴딜펀드(2021~2025년) 예산은 5100억원이지만, 펀드출자액은 851억원으로 17%에 불과했다. 혁신모험펀드는 3200억원의 예산중 2408억원(75%)이 출자됐고, 기업혁신펀드는 4400억원중 256억원(6%)만 집행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집행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지만 투자되는 분야를 보면 디지털 그린 분야 등 우리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각 펀드의 목적이 따로 있는 만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은보 “금융사 사후 처벌보다 사전 감독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간담회
법·원칙에 따른 감독 등 원칙 제시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고도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쉐르톤 호텔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부터),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포즈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가

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감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고 덧붙였다.

또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담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올 니켈 값 32% ↑… 광물·원자재 값 뛰다

≫ 1년 '마그네슘·희토류 등'서 계속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주요 광물 및 원자재 가격은 최근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니켈의 평균 가격은 톤당 1만8170달러로 전년 평균(1만3789달러)보다 31.8%나 올랐다. 탄산리튬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톤당 6375달러였으나, 이달 1주차 평균 가격은 3만349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발트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파운드(lb)당 16.07달러였으나, 이달 1주차 평균 가격은 27.60달러였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성분인 니켈과 코발트 가격 상승은 국내 배터리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건설현장과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실리콘도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내 감산이 이뤄지면서 실리콘 원료인 메탈실리콘 가격은 지난 8월 초 1만7000

위안에서 지난달 6만1000위안까지 상승했다.

인도네시아가 니켈 등 원광수출 제한에 이어 팜오일 원유의 수출 중단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팜 원유의 수출 중단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경우 세계 시장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